

매개감염병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물, 식품, 사람간의 접촉, 동물, 곤충 등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병

○ 혈액매개감염병

- 혈액 및 체액을 매개로 질병을 전파
- AIDS(에이즈), B형간염, C형간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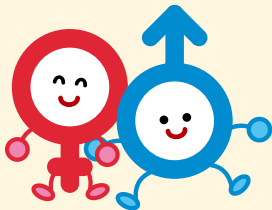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과 음식을 섭취하여 질병을 전파
- A형간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등

○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도 함
- 벼룩, 이, 모기, 진드기, 옴, 설치류 등이 매개하여 질병을 전파
- 모기 - 일본뇌염, 황열, 뎅기열 등
- 진드기 - 쯤쯤가무시증, SFTS 등
- 설치류 - 발진열, 렙토스피라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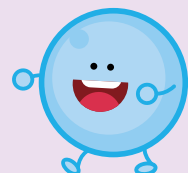


○ 성매개감염병

- 성접촉으로 인한 전파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등

○ 공기매개감염병

- 크기가 작은 미생물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호흡기를 통하여 질병을 전파
- 침방울을 통한 비말전파보다 전염력이 높음
- 홍역, 수두, 결핵 등



01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 옴

옴은 사람 피부의 각질층에 기생하는 옴 진드기의 의해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피부질환입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확진되지 않는 피부병변이 있는 경우 옴을 반드시 감별**해야합니다.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에 발생 빈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 원인

- 암컷 옴진드기가 피부각질층에 몸을 숨기고 굴을 만들어 알을 낳는 일을 반복함
- 감염부위를 손으로 긁을 때 손톱으로 들어간 진드기가 신체 다른 부위로 전파됨



출처 : J Korean Med Assoc 2011 May; 54(5): 511-520

▶ 증상

-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증이 특징
- 회색에서 황백색의 구멍 모양의 각질이 증식
- 물집 또는 고름이 형성되기도 함

▶ 감염 경로 및 전파 기간

- 사람 사이에서 감염된 환자의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 전파(가족, 간병인, 성접촉자 등)
- 드물게 침구, 옷, 기구, 물품(휠체어 등 공동 의료기구, 피부크림, 로션 등)에 의해 전파
- 처음 감염 시 **2~6주 동안 증상은 없으나, 전염력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환경관리 필요**

▶ 예방

- 선제 조치
 - 명확한 원인이 없는 피부병변(물집, 가려움 등)이 있는 환자 접촉 시 일회용 비닐장갑 및 일회용 비닐가운 착용
- 환경관리
 - 옴 진드기와 알은 옷, 침구 등에 붙어 2~3일까지 생존할 수 있음
 - 감염자의 옷, 침구 등을 뜨거운 물(50~60℃)에 10~20분간 세탁하고 3일 후 사용
 -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간 햇볕에 말리거나, 비닐백에 밀봉 보관 후 4일째 되는 날 사용
 - 옴환자가 사용한 방은 매일 진공청소기로 환경표면을 철저히 청소해야 함
-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단순 접촉도 금지

▶ 치료 및 관리

- 의사의 판단에 따라 크림 또는 로션 치료제 처방
 - ※ 도포제는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도포, 마비로 수축되거나 접히는 부위까지 꼼꼼하게 발라야함
 - ※ 환자 접촉 시 개인보호구(일회용 비닐장갑, 비닐가운) 착용
- 동거가족 및 밀접접촉자 등은 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를 받아야함

혈액매개감염병 - C형간염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가 혈액으로 침입하였을 때,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로 인해 간세포들이 파괴되면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고,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 증상

- 급성 C형간염
 - 평균 잠복기는 7~8주이며, 약 70~80%는 무증상
 - 드물게 몸살, 피로, 오심, 식욕부진 등의 비특이적 증상 발생
 - 급성 감염 후 50~80%가 만성 간염으로 이행
- 만성 C형간염
 - 대부분 무증상, 일부 환자에게서 피로, 오심, 근육통, 관절통, 체중감소 등의 증상 발생
 - 지속적인 간 손상 유발, 5~25%는 간 기능이 저하(간경변증)되고, 그 중 1~4%는 간암 발생

▶ 전파경로

- 혈액매개감염으로 전파
- 불완전한 주사나 의료시술
-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에 찔리는 경우, 오염된 기구를 이용한 문신, 피어싱 시술
- 주사기 공동사용 및 재사용 한 경우

▶ 치료 및 관리

- 목표 : C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증의 합병증, 간세포암종, 간 외 합병증 발생 예방
-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위해 C형간염 유전형 검사 실시(유전형에 따라 치료약제 및 기간이 다름)
- 치료하지 않으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 될 수 있어 의사진단하에 치료완료 해야함
- 별도 격리는 불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치료 권고

▶ 예방

- 백신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방법이 중요
- C형간염에 감염된 사람의 칫솔, 구강위생용품, 면도기, 손톱깎이 등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도구는 개별 사용
- 문신, 피어싱 등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지 않음
- 의료기관에서는 예방을 위해 표준주의 준수
 - 일회용 의료기구 재사용 금지
 - 재사용 의료기구의 적절한 재처리(소독, 멸균 등)
 - 안전한 주사 실무 준수



C형간염 검사 대상자 여부 자가 체크리스트

- ① 공공장소(목욕탕, 찜질방, 네일아트점 등)에서 공용 손톱깎이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
- ②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제공하는 면도를 받은 적이 있다. ☐
- ③ 액세서리 판매점 등에서 피어싱(귀, 눈썹, 코 등 뚫기)을 한 경험이 있다. ☐
- ④ 눈, 아이라인, 몸 등에 문신 시술한 경험이 있다. ☐
- ⑤ 의료기관 외에서 정맥주사, 주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 ⑥ 의료기관 외에서 침, 부항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 ⑦ 혈액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 ☐
- ⑧ 1991년 이전에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다. ☐
- ⑨ 다수의 성파트너와 콘돔 없이 성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위 항목에서 '네'라고
대답한 개수가 1개 이상이면
C형간염 검진이 필요함.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병 - 뎅기열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고열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 질환입니다. 해외여행자가 늘어난 만큼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뎅기열은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 증상

- 두통, 근육격계 통증, 발진을 동반하는 급성 열성질환
- 감염자 중 75%정도가 무증상
- 감염자 중 5%정도는 중증 뎅기열(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로 진행

▶ 감염 경로 및 전파 기간

-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모기에 물려 전파
- 잠복기는 5~7일
- 약 4~5일 동안 바이러스가 살아 있으며, 최대 12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음
- 모기는 바이러스가 있는 혈액을 흡혈한 지 8~12일 후부터 바이러스가 죽을 때까지 감염력 가짐

▶ 예방

- 백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
- 모기가 많이 있는 '풀 숲', '산 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을 착용, 3~4시간 간격으로 모기 기피제 사용
- 뎅기열을 매개할 수 있는 모기종이 국내에도 서식하므로 주의가 필요



흰줄숲모기

출처: 질병관리청

▶ 치료관리

-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 수행
- 중증 뎅기열인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의 경우 수액공급과 보존적 치료를 시행